

돈 쓸 곳 찾는 외국 관광객 겨냥 대형 쇼핑센터 유치 절실

관광형 쇼핑명소가 지역경제 희망이다

<1> 쇼핑객 물려오는데 광주·전남 뭘하나

지방분권, 지역경제 활성화 화두가 일반화한지 오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봉급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최근 권역별 개발 프로그램을 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문화·콘텐츠 산업과 휴양, 관광, 레저산업이 복합된 해양관광이 선정돼 지역특화발전프로그램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세계화시대 관광형 쇼핑이 대세인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관광객이 늘어나도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광주·전남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형 아울렛 개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고 있는 경기·부산 지역과 홍콩 등을 취재해 총 7회 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인 로얄캐리비언 마리너호를 타고 광양에 입항한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아 1박2일 기간 쓰고간 상품 구입 총액은 5000만원에 그쳤다. 이날 승무원 포함 관광객 4700여명이 내렸으니 1인당 고작 1만원에 못미친 셈이다. 이는 부산 면세점 한 곳의 4억원과 비교해, 10분의 1로 전남의 관광정책의 허술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세계사이먼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1억달러(약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유치 의향서'를 전남도, 나주시와 체결했다. 지자체와 유통기업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형 쇼핑센터인 명품 아울렛 건립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호남까지 미친 것이다.

쇼핑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 이른바 '관광형 쇼핑'은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다.

◇관광객 물려오지만 돈 쓸 곳이 없다=크루즈 관광의 활성화로 이미 부산, 인천 등 지자체들이 항만과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대형쇼핑센터와 연계, 외국인과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대형 유통업체 유치를 통해 국내·외 쇼핑 관광객을 불러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쌀과 도자기로 알려진 여주가 한해 관광객 600만명이 찾는 쇼핑의 도시로 변모하면서 '아울렛 효과'를 통해 신세계'로 거듭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공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광주와 전남은 관광산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관광객이 물려와도 쇼핑·숙박시설이 부족해 지나가는 관광지에 그쳐 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양에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인 로얄캐리비언 마리너호가 입항해 전남 지역 관광에 나섰지만 1인당 상품

대기업 나주·여수·광양 아울렛 추진 행정절차·주민반발 풀어야 할 숙제

쇼핑 선진국인 홍콩 등 벤치마킹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생 모색해야

구입비로 1만원도 못쓰고 갔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다. 만약 부산의 센텀시티 같은 대형쇼핑센터가 있었으면, 어엿한 면세점이라도 있어 관광객들을 유도했으면 하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주시와 전남도 대응은 발 빠르지 못했다. 전남도는 시내면세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곳곳에 사후면세점 4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해외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 내 전남·광주 특산물 공동 판매장 운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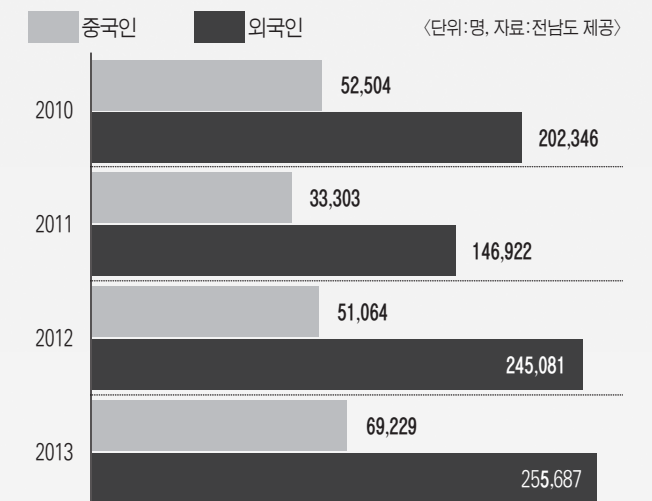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어렵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도 쇼핑시설이 없어 수도권과 부산 등지로 뺏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관광지 인근에 대형 쇼핑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형 쇼핑센터 유치가 필수다=이러한 분위기에서 지역 내 '아울렛 유치'가 달아오르고 있다. 호남·충청권 첫 입점이 라는 프리미엄 선점과 향후 중국·일본 관광객 수요까지 내다보며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최근 신세계사이먼과 11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의향서를 체결했다. 신세계사이먼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인근 30여만㎡의 부지에 매장면적 3만㎡ 이상의 쇼핑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엑스포 도시인 여수에서는 해수부가 박람회장 재활용 방안의 하나로 홍콩의 초저가 명품 아울렛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광양시는 광양읍 덕래리 7만6583㎡의 부지에 아울렛을 건립하기 위해 LG패션과 논의 중이다.

복합문화공간

■전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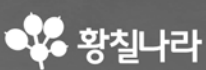
인 'LG패션 아울렛'은 이르면 내년 초 착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 일부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초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 유통업체의 또 다른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형 아울렛이 여러 도시에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역행정 측면에서 전남도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관광형 쇼핑 명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희망으로 떠오른 만큼 창조적 아이디어와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형 쇼핑센터 유치로 인구 유입과 사업체 수 증가에 따른 세수익과 고용 창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여주시의 경우와 쇼핑·레저·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경쟁적으로 조성,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는 부산의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규모는 다르지만 허버시티 등 세계적인 쇼핑센터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 관광형 쇼핑의 선진지로 꼽히는 홍콩을 벤치마킹할 것을 권한다.

광행구 전남발전연구원 생태·문화연구실장은 "광주와 전남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늘고 있지만 정착 쇼핑은 부산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광객들의 쇼핑특성을 감안한 쇼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관광객이 물려와도 광주와 전남에는 쇼핑시설이 부족해 지나가는 관광지에 그칠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양에 입항한 크루즈선 로얄캐리비언 마리너호에서 관광객이 내려 전남 지역 관광에 나서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골프, 등산, 술... 이제 걱정 끝!!!
지친 당신에게 권합니다.



출시예정

제품명 : 간편에 식품의유형 : 다류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 황칠추출물(100%)
제조원 : 황칠다남(주) 판매원 : 황칠나라약품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51-3 고객센터 : 061864-5788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